

영어 접어, 부사전치사, 전치사 구문의 운율 특성*

한혜승, 이주경**
(서울시립대학교)

Han, Hye-Seung, and Joo-Kyeong Lee. 2009. Prosodic features in the English phrases including particles, adverbial prepositions and preposition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5.3. 499-514.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prosodic features in the English phrases including particles, (e.g., the second element in a verb phrase such as *give up the exam*), adverbial prepositions (e.g., the second element of *jump off the wall*) and prepositions (e.g., the second element of *study in the room*). A phonetic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and /or prosodic structures among those three phrases. The stimuli were varied with two different objects, noun and pronoun and two kinds of rate, slow and fast, and pitch accent distribution and phrasing were measured within the phrases. Results showed that pitch accents were very frequently realized on both the particles and the adverbial prepositions, but that prepositions were rarely implemented a pitch accent. When the objects were a pronoun, a pitch accent consistently moved to particles, adverbial prepositions, and prepositions. Moreover, there are more phrase involved in the boundaries of the particle + the following noun phrase and the preceding verb + preposition, and few boundaries involved in the boundaries in the preceding verb + adverbial preposition and the adverbial preposition + the following noun phrase. It was interpreted as stating that such patterns reflect the differences in semantic weight among the three elements and the degree of semantic cohesion with the preceding verbs and the following noun phrases, and that adverbial phrases show distinct prosodic features from both particles and prepositions. This suggests that adverbial prepositions should constitute their own category semantically and/or prosodically. (University of Seoul)

Keywords: particle, adverbial preposition, preposition, pitch accent, phrasing

1. 서론

통사론을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어순을 반영한 문장구조나 의미적, 운율적 기준을 제시하여 이른바 구동사(phrasal verb)의 구성소로 알려진 접어(particle)와 일반 전치사(preposition)를 양분하려는 시도가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졌다(Emonds 1972; Quirk et al. 1972; Fraser 1976; Dixon 1982; Martin 1990). 운율적 증거를 토대로 접어와 전치사를 구분하려는 연구는 이들 구문 내에 실현되는 피치엑센트 분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O'Dowd 1998). 다음 (1)에 제시된 두 문장은 모두 수동형 구문이고 주어를 제외한 동사구(VP)의 구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1a) 문장은 대문자로 표시된 접어 ON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된 데 비하여, (1b) 문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A00155)

** 교신저자

장에서는 전치사로 사용된 on이 아니라 동사 SEWED에 피치액센트가 실현된다.

- (1) a. The button was sewed **ON** (particle).
b. The dress was **SEWED** on (preposition).

그러나 Dehé (2002)의 연구결과는 이것과 상이하였다. 즉, 동사와 명사목적어 사이에 접어, 또는 전치사를 위치시키고 동사구문에 나타나는 피치액센트를 관찰하였을 때 피치액센트를 받는 요소는 목적어이고 접어와 전치사에는 모두 피치액센트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Bolinger (1971)는 부사전치사(adverbial preposition)라는 세 번째 요소를 제시하고 접어나 전치사와의 구분을 주장하였다. Bolinger는 의미적, 운율적 설명을 바탕으로 이러한 세 개의 범주는 모두 서로 다른 문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다음 (2)번에 제시된 세 문장을 살펴보자.

- (2) a. She swept off the stage (that is, cleaned it).
b. She swept off the stage (that is, did her sweeping elsewhere).
c. She swept off the stage (that is, departed majestically).

세 문장 모두 구조적으로는 동일하나 각 문장 뒤 괄호 안의 의미차이를 제시하여 off의 세 가지 의미적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2a)의 swept off는 동사-접어 구조이며 접어인 off는 동사의 작업을 완수한다는 부사적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2b)의 off the stage는 전치사구로서 동사의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2c)의 off는 부사전치사로서 동사와도 연결되고 후행하는 목적어와도 연결되어 동사의 동작이 완료된다는 의미와 뒤따르는 목적어가 나타내는 장소에서 분리된다는 의미를 모두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즉, “She (swept off), (off) the stage”와 같이 선행하는 동사와 후행하는 목적어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부사전치사는 의미적으로 기존의 접어 및 전치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때 때로는 전치사와 그리고 때로는 접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통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사전치사는 전치사의 속성에 가깝다. 다음 (3)에서 보여주는 예처럼 부사전치사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다른 일반 전치사처럼 부사전치사를 후행하는 위치에 나타나지만(3a), 동사와 부사전치사 사이에 삽입되는 구조는 허락되지 않는다(3b).

- (3) a. She swept off it majestically.
b. * She swept it off majestically.

Bolinger는 피치액센트가 부여되는 패턴의 예를 들어 부사전치사가 전치사보다는 접어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4)의

에는 부사전치사 ‘off’에 피치액센트가 부여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앞서 (1)의 O’Dowd (1998)의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전치사는 피치액센트를 구현하지 못하고 반면에 접어는 피치액센트를 동반하므로 (4)에서 보여주는 접어의 운율적 속성은 접어와 같다는 것이다.

(4) Show me the stage she swept **OFF**.

Bolinger 는 부사전치사의 운율적 속성은 의미적 해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논하였다. 즉, 접어의 속성은 동사구(verbal phrase)의 중요한 의미특성을 공유하므로 강세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비해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 형태로 오는 명사가 의미적으로 중요하므로 주로 후행 명사에 강세가 주어진다고 해석한다. Lambrecht (1994)도 새롭고, 예측하기 어렵고, 의미가 풍부한 요소가 문장에서 초점액센트(focal accent)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때 목적어가 친숙한 구정보이거나 전제되는 경우에는 원래 초점이 될 수 있었던 요소가 비초점으로 바뀌는 자동 강세부여(default accentuation) 또는 강세상실(distressing) 전략이 적용된다는 설명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위의 (4)에 제시된 부사전치사 ‘off’가 피치액센트를 구현하는 이유는 동사구의 접어처럼 의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접어와 전치사의 운율적 특징을 관찰한 연구 중 구경계 패턴을 비교한 시도도 있다. Jaeger and Norcliffe (2005)는 초점 후 구조에 동일한 형태의 동사 + 접어 + 명사목적어 및 동사 + 전치사 + 명사목적어와 같은 두 가지 구문을 구성하고 접어와 전치사의 운율적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접어가 전치사에 비해 마지막 음절의 운모(Rhyme) 길이가 길게 나타났다는 점에 근거하여 접어와 목적어 사이에 구경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전치사가 사용된 구문은 접어 구문에 비해 동사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므로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구경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Jaeger and Norcliffe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비교를 위하여 접어와 전치사 구문의 두 문장을 표면적으로 동일하게 구성하고 화자가 해당 문맥을 통하여 접어와 전치사를 구분하여 발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피험자로 하여금 주어진 문장이 잠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두 문장을 다르게 발화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실험 문장은 일반적으로 동사+접어 연쇄로 사용되는 구문을 동사+전치사 구문으로 인식하도록 특수하고 의도적인 문맥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 동일한 문장을 문맥을 통하여 구분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접어, 전치사, 부사전치사가 사용된 모든 문장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하나의 구조가 다른 구조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사적, 의미적 통제를 가하였다.

접어, 전치사, 부사전치사의 운율적 특징을 살펴본 기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몇 가지 점들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O'Dowd (1998)의 정량적(quantitative) 실험연구를 통하여 전치사는 피치액센트가 실현되지 않고, 반면 접어는 피치액센트를 실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사전치사의 운율 특징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Dehé (1998)의 연구에서는 접어와 전치사 모두 피치액센트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상이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접어, 부사전치사, 전치사 모두를 비교하기 위하여 음성실험을 통하여 실제 발화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Bolinger(1971)는 부사전치사의 범주를 제기하여 접어와 전치사와의 운율 비교를 시도하였지만, 이는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한 연구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어, 부사전치사, 전치사,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발화를 영어 원어민을 통하여 녹취하고 피치액센트와 구경계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이 세 구조에 나타나는 운율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피치액센트와 구경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턴이 나타나도록 목적어를 명사와 대명사로 분리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또한 발화 속도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의 두 가지 발화 속도로 녹취하여 조사할 것이다.

2. 실험

2.1 실험절차

본 실험은 접어, 부사전치사, 전치사(이후 이 세 단어를 합하여 'P 단어'라고 칭함)가 포함된 발화의 억양곡선에 나타나는 피치액센트와 구경계를 관찰하여 '동사+P단어+명사'에 나타난 운율패턴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대상 구조가 포함된 발화는 P단어의 종류, 명사 및 대명사 목적어, 그리고 속도의 세가지 다른 요인을 고려하였고, 모든 결과는 통계 분석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녹음에 참가한 영어 원어민은 모두 다섯 명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미국인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과 캐나다인 남성 한 명, 여성 두 명이다. 한 명은 미국인으로 미국대학 휴학생이며 다른 네 명은 본국에서 대학교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1개월에서 5년에 걸쳐 다양하다.

실험문장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P 단어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즉,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접어가 위치하는 경우가 P1 유형이고, P2 유형은 부사전치사, P3 유형은 일반 전치사가 나타나도록 구성하였다. P1과 P3의 의미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P2는 전/후 문맥에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P2를 구별하는 중요한 구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O'Dowd (1998: 108)에 의하면 P2는 일정한 문맥이 주어질 때 후행하는 목적어의 하부어휘화(sublexicalization)가 일어나

목적어의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P2 는 기본적으로는 P3 와 같은 구조를 가지나 목적어의 삭제가 가능한 구문을 구성하고 영어 원어민 두 명의 점검을 받아 P2 로 구분되는 문장을 구성하였다. 실험문장을 점검한 원어민은 발화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P 단어들과 관련된 운율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동사와 P 단어 사이의 음성환경을 통일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즉, 동사의 경우 대부분 1 음절로 구성된 동사를 사용하였으며 이어서 나타나는 P 단어들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1-2 음절 단어로 제한하였다. 각 유형의 문장은 같은 수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이와 같은 음절환경의 제약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P1 구문은 15 문장, P2 구문은 8 문장, P3 구문은 14 문장을 구성하였다.

각 문장의 목적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명사의 정보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일반 명사구문으로 된 명사목적어의 경우가 있고, 선행 문장에서 명사구문을 제시하고 이어서 실험 문장을 배치하여 후행하는 실험 문장에는 해당 명사구문을 대명사로 대체시킨 대명사목적어의 경우로 나누었다. 또 발화속도가 피치액센트와 구경계의 출현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Roca & Johnson, 1999)의 결과를 참조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문장을 먼저 속지하게 한 후, 느린 속도, 중간 속도,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고 변별적인 구분을 위해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만을 분석하였다. 다음 (5)은 각 유형별로 명사와 대명사 목적어가 포함된 실험문장의 예이다. 각 유형에서 (a)에 제시된 문장은 명사 목적어를 갖는 문장이고, (b)는 대명사 목적어를 갖는 문장이다. (b)에서 선행하는 괄호 안의 문장은 피실험자가 읽을 필요는 없으나 실험 문장 내의 대명사의 지시대상을 먼저 밝혀주기 위해 제시된 문장이다. 대명사 목적어를 가지는 (b) 문장들 가운데 P1 유형의 (b) 문장은 대명사와 접어의 위치가 바뀌어 대명사목적어 *them* 이 동사와 접어 사이에 위치하는 점이 P2, P3 유형의 대명사 문장들과 구분된다.

(5) 실험문장

P1: a. The students **count in the new comers**.

b. (New comers are transferred to our school in May every year.
The students **count them in**.)

P2: a. Jane **got on the two story bus**.

b. (Jane saw the two story bus for the first time.) Jane **got on it**.

P3: a. Robert **sat in the comfortable armchair**.

b. (There is a comfortable armchair which belongs to my grandmother in the living room.) Robert **sat in it**.

각각 명사 및 대명사 목적어를 가지는 37 개의 문장을 다섯 명의 화자가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로 발화하도록 하여, 총 740 문

장의 음성자료를 얻었다. 녹음된 자료는 각 문장마다 별도의 파일로 편집하여 저장하고 Praat 프로그램 상에서 ToBI 레이블링을 실시하였다. ‘동사+P 단어+명사구’에 나타난 피치액센트의 분포와 ‘동사+P 단어’ 사이와 ‘P 단어+명사구’ 사이의 구경계 여부를 조사하였다. 영어의 발화단계 운율 패턴은 피치액센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액센트음보가 결정하며, 연속되는 피치액센트 사이에 구경계와 같은 불연속성을 삽입시킴으로써 강-강의 연속을 강-약-강의 리듬구조로 수정하기도 한다(Lee & Kang 2009). 이러한 불연속성은 중간구(intermediate phrase)나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경계가 발생할 때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피치액센트뿐 아니라 운율구조의 불연속성을 통하여 리듬구조를 형성하는 중간구와 억양구를 모두 고려하여 구경계 여부를 계산하였다.

2.2 실험결과

먼저 ‘동사+P단어+(대)명사’ 구문의 억양패턴에 나타난 피치액센트의 분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자. 단, P1 유형의 경우 ‘동사+대명사+P단어’의 구조임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목적어 유형이나 속도에 관계없이 접어(P1)와 부사전치사(P2)는 일반 전치사(P3)보다 피치액센트가 많이 실현되었으며, 카이제곱 검증 통계 결과처럼 P1과 P2 사이의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은 속도나 목적어의 유형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chi^2=1.114$, $\chi^2=0.505$, $\chi^2=0.378$, $\chi^2=1.794$, $p > 0.05$). 그러나 P2와 P3 두 범주는 액센트 실현 비율에 있어 P1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2와 P3사이는 $\chi^2=6.233$, $p < 0.01$, $\chi^2=14.691$, $\chi^2=8.898$, $\chi^2=8.417$, $p < 0.05$, P1과 P3 사이는 $\chi^2=12.280$, $\chi^2=7.522$, $p < 0.01$, $\chi^2=4.073$, $p < 0.05$). 단, 명사의 빠른 속도에서 P1과 P3의 차이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chi^2=3.424$, $p > 0.05$).

표 1. P단어의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 차이 검증

| 목적어 | 속도 | P1 (%) | P2 (%) | P3 (%) | P1, P2 의 χ^2 | P2, P3 의 χ^2 | P1, P3 의 χ^2 |
|-----|----|--------|--------|--------|-------------------|-------------------|-------------------|
| 명사 | 빠른 | 14.7 | 22.5 | 2.9 | 1.114 | 6.233* | 3.424 |
| | 느린 | 33.3 | 40.0 | 2.9 | 0.505 | 14.691** | 12.280** |
| 대명사 | 빠른 | 44.0 | 50 | 20.0 | 0.378 | 8.898** | 7.522** |
| | 느린 | 52.0 | 65 | 40.0 | 1.794 | 8.417** | 4.073* |

**p < 0.01, * p < 0.05

다음 [표 2]는 P 단어가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에서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느린 속도에서 빠른 속도보다 p 단어에 피치액센트를 더 많이 실현하였다. 그러나 P1 이 명사 목적어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chi^2=7.164$, $p < 0.01$), 속도에 따라 P 단어 액센트 실현 비율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0.965$, $\chi^2=2.851$, $\chi^2=1.841$, $\chi^2=0.0000$, $\chi^2=1.942$, $p > 0.05$).

표 2. 속도별 피치엑센트 실현 비율 차이 검증

| | | 빠른(%) | 느린(%) | χ^2 |
|-----|-----|-------|-------|----------|
| PP1 | 명사 | 14.7 | 33.3 | 7.164** |
| | 대명사 | 44.0 | 52.0 | 0.965 |
| PP2 | 명사 | 22.5 | 40.0 | 2.851 |
| | 대명사 | 50.0 | 65.0 | 1.841 |
| PP3 | 명사 | 2.9 | 2.9 | 0.000 |
| | 대명사 | 20.0 | 40.0 | 1.942 |

** p < 0.01, * p < 0.05

다음 [표 3]은 P 단어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는 경우를 목적어 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목적어가 대명사로 전환되는 경우 P 단어는 유형이나 속도에 관계없이 모두 피치엑센트 실현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P1의 빠른 발화와 P3의 느린 발화의 경우, $\chi^2=15.566$, $\chi^2=10.057$, $p<0.01$ 이며, 나머지 경우는 $\chi^2=5.342$, $\chi^2=6.545$, $\chi^2=5.013$, $\chi^2=3.968$, $p<0.05$ 이다).

표 3. 목적어별 피치엑센트 실현 비율 차이 검증

| | | 명사(%) | 대명사(%) | χ^2 |
|------|----|-------|--------|----------|
| PP1 | 빠른 | 14.7 | 44.0 | 15.566** |
| | 느린 | 33.3 | 52.0 | 5.342* |
| PP2 | 빠른 | 22.5 | 50.0 | 6.545* |
| | 느린 | 40.0 | 65.0 | 5.013* |
| P P3 | 빠른 | 2.9 | 20.0 | 3.968* |
| | 느린 | 2.9 | 40.0 | 10.057** |

** p < 0.01, * p < 0.05

위의 [표 1, 2,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 단어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는 비율은 P2가 느린 발화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65%이고, 가장 낮은 비율은 P3가 빠른 발화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20%이다. 따라서 P 단어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지 않는 비율이 P1이나 P2의 경우에는 거의 반에 해당하는 발화에서 발견되며, P3인 경우에는 반을 훨씬 상회하는 발화에서 발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사+P 단어+명사구’의 구조에서 P 단어에 피치엑센트가 구현되지 않는 경우 피치엑센트는 어느 요소에 실현되는지 알아 보았다. 본 실험은 ‘동사+P 단어+명사구’의 부분적인 구조 내의 운율 특징을 살펴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에 대한 피치엑센트 분포를 계산하지 않고 ‘동사+P 단어+명사구’에 한정하는 피치엑센트를 관찰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P 단어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같은 구문에서 어느 요소에 피치엑센트를 실현하는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P1이 포함된 빠른 발화가 후행하는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14.7% 발화에서만 P 단어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었다.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발화에 피치엑센트가 어느 요소에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P 단어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선행 동사와 후행 명사구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는 비율을 명사구가 대명사인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P1의 명사 빠른 발화의 경

우 P1 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지 않은 85.3%의 경우 중 98.4%가 선행 동사에 95.3%가 후행 명사에 엑센트가 실현되었다. 즉, P1 에 엑센트가 실현되지 않으면 동사와 명사 모두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P단어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지 않은 발화에서 피치엑센트 분포 비율

| | 속도 | P1(%) | | P2(%) | | P3(%) | |
|-----|----|-------|------|-------|------|-------|------|
| | | 동사 | 명사구 | 동사 | 명사구 | 동사 | 명사구 |
| 명사 | 빠른 | 98.4 | 95.3 | 96.8 | 96.8 | 97.1 | 94.1 |
| | 느린 | 100 | 98.0 | 95.8 | 95.8 | 97.1 | 94.1 |
| 대명사 | 빠른 | 97.6 | 2.4 | 100 | 0 | 100 | 0 |
| | 느린 | 100 | 5.6 | 100 | 0 | 96.8 | 0 |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P 단어 유형에 관계없이 선행 동사와 후행 명사구 모두에 피치엑센트를 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속도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0.1$).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P 단어에 피치엑센트가 구현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피치엑센트는 선행 동사에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대명사에 피치엑센트가 부여된 경우는 P2와 P3의 경우는 하나도 없었으며, P1의 경우에도 극소수에 불과해서 이들 사이에 통계적 차이는 전혀 없었다($p > 0.1$).

다음은 동사+P 단어+명사구 구조에 나타난 구경계 패턴을 살펴보자. [표 5]는 P 단어 유형별로 각각의 구조에서 속도별, 목적어 범주 별 구경계가 나타나는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실험문장이 ‘동사+P 단어+명사구’ 구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구조 앞에 주어와 오고 뒤에는 별 다른 요소가 없이 발화가 끝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영어는 접속사나 관계사로 연결되는 복문처럼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장은 통사적 구조에 따라 중간구나 억양구와 같은 구경계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본 실험에서 조사한 실험문장처럼 구조적으로 단순한 발화의 경우는 대부분 하나의 억양구 안에 하나의 중간구가 포함되므로 억양구 내에 구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5]는 이러한 구조의 억양패턴을 그대로 반영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서 구경계 발생 비율이 낮다. 전체적으로 빠른 발화보다 느린 발화에서 구경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P1의 경우 P1+NP의 경계 비율(빠른 속도 12.0%와 느린 속도 17.3%)이 선행하는 V+P1의 경계 비율(빠른 속도 1.3%와 느린 속도 2.7%)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P3의 경우는 V+P3의 경계에서의 구경계 비율(빠른 속도 14.3%와 느린 속도 34.3%)이 P3+NP의 경계에서의 비율(빠른 속도 2.9%와 느린 속도 11.4%)보다 현저하게 낮다. 반면,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P1을 포함하는 구조 ‘V+PRO+P1’사이에는 빠른 속도에서 구경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느린 속도에서도 소수만 나타났다가(V+PRO 경계는 4.0%와 PRO+P1 경계는 1.3%). P2와 P3인 경우 목적어가 대명사가 되었을 때에는 대명사에는

피치액센트 속도와 관계없이 피치액센트가 실현되지 않았고, ‘V+P 단어’ 사이의 경계에서만 구경계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구경계 설정 비율

| 목적어 | 속도 | P1(%) | | P2(%) | | P3(%) | |
|-----|----|-------|--------|-------|--------|-------|--------|
| 명사 | | V+P1 | P1+NP | V+P2 | P2+NP | V+P3 | P3+NP |
| | 빠른 | 2.7 | 12.0 | 0 | 0 | 14.3 | 2.9 |
| | 느린 | 1.3 | 17.3 | 5.0 | 5.0 | 34.3 | 11.4 |
| 대명사 | | V+PRO | PRO+P1 | V+P2 | P2+PRO | V+P3 | P3+PRO |
| | 빠른 | 0 | 0 | 12.5 | 0 | 8.6 | 0 |
| | 느린 | 4.0 | 1.3 | 5.0 | 0 | 17.1 | 0 |

선행연구(Jaeger and Norcliffe, 2005)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접어인 경우(본 실험에서는 P1), 선행 동사보다는 후행 명사구 사이에 구경계가 더 많이 설정하고, 전치사인 경우(본 실험에서는 P3)에는 후행 명사구보다는 선행 동사와의 경계에서 구설정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각각의 P 단어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요소와의 경계에서 구설정을 할 때 어떤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지 P 단어내의 위치별 구경계 비율을 살펴보겠다.

먼저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1 단어를 중심으로 선행하는 동사와의 경계가 후행하는 명사구와의 경계의 구설정 비율은 빠른 속도에서 2.7%와 12.0% 이다. 그리고 이 두 비율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후행 구조인 P1+NP 사이의 경계가 더 많다($\chi^2=6.400$, $p < 0.05$). 또한 느린 속도에서는 P1 을 중심으로 선행 경계에서는 1.3%에 해당하는 발화에서, 후행 경계에서는 17.3% 발화에서 구경계가 설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268$, $p < 0.01$). P2 의 경우를 보면 P2 단어를 중심으로 선행하는 동사와 후행하는 명사구 사이에 어떤 경계도 관찰되지 않았고, 단지 느린 발화에서 각각의 경계에서 5%씩 구경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V+P2 사이의 구경계와 P2+NP 사이의 구경계의 비율은 두 속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chi^2=0.000$, $p > 0.5$). 반면 P3 경우는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후행 경계에서 보다 선행경계에서 더 높은 비율로 구경계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빠른 속도에서는 선행하는 V+P3 경계에서 14.3%, 후행하는 P3+NP 경계에서 2.9%가 나타났고, 이들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통계를 적용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chi^2=2.667$, $p < 0.05$). 느린 발화에서는 V+P3 경계에서 34.3%, P3+NP 경계에서 11.4%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000$, $p < 0.05$).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P1 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구경계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조가 바뀌지 않는 P2 와 P3 의 경우만을 비교하기로 한다. 먼저 P2 가 빠른 속도에서 선행하는 V+P2 의 경계가 12.5%이고 후행하는 P2+PRO 의 경계에 0%의 구경계가 관찰되었으며, 이 둘 사이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236$, $p < 0.05$). 그러나 느린 속도에서의 5.0%와 0%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414$, $p > 0.05$). P3 인 경우의 두 위치에서의 구경계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빠른 속도에서 선행경계인 V+P3 에는 8.6%, 후행하는 P3+PRO 에는 0%가 나타났으며, 이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chi^2=1.732$, $p > 0.05$). 또한 느린 발화에서도 선행 경계 V+P3 에 17.1%의 구경계가 발생하고 후행 경계 P3+PRO 에서는 0%가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행경계에 구경계가 더 많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chi^2=2.245$, $p < 0.05$).

3. 논의

지금까지 세 종류의 P단어, 즉 접어, 부사전치사, 일반전치사가 포함된 구문의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과 구경계 비율을 조사하였다. 여러 기존 연구에서 통사적, 의미적, 운율적 근거를 통하여 이 세 범주를 구분하려고 하였지만, 운율구조를 결정하는 피치액센트와 구경계를 모두 관찰함과 동시에 운율의 변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속도나 목적어 범주를 고려하여 접어, 부사전치사, 일반전치사의 세 요소의 운율 특징을 모두 비교한 연구가 없었다.

먼저 P 단어의 피치액센트 실현비율은 접어와 부사전치사가 일반전치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즉, 서론의 (2)의 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사전치사는 의미적으로 선행 동사와도 후행 명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선행 동사와도 의미적으로 결집하여 새로운 동사의 의미를 형성함과 동시에 후행하는 명사와도 의미적으로 연합하여 명사의 위치나 시간의 의미를 보조하는 전치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행동사와 응집하여 새로운 동사구의 의미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P1 접어의 의미적 역할보다 P2 부사전치사는 의미적으로 두 배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P1 이 이러한 의미적인 근거로 피치액센트를 실현한다면 P2 가 피치액센트를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P2 의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이 발화속도나 목적어 범주에 관계없이 P1 의 실현비율보다 높은 것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실험문장에서 목적어가 대명사가 되었을 때, 접어는 일반전치사나 부사전치사와 달리 반드시 대명사와 순서를 바꾸어 대체로 억양구 마지막 위치에 나타난다. Bolinger (1971)와 Lambrecht (1994)가 지적한 바 있듯이, 구말 위치(end position)와 관련한 핵강세인 초점액센트 실현에 있어 접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변수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접어는 목적어와 초점위치인 구 말 위치를 놓고 경쟁을 하다가 목적어가 구정보를 가진 대명사가 되었을 때 접어가 구 말 위치를 점유하게 되고 피치액센트는 자연스럽게 접어에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사전치사나 일반전치사의 경우도 목적어가 대명사가 되었을 때 같은 이유로 P 단어의 피치액센트 실현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들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에도 위치를 바꾸지 않고 대명사가 구말 위치에 오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대명사는 의미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피치액센트가 실현되지 못하고 선행하는 부사전치사와 일반전치사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장 마지막 요소인 대명사는 문맥에 의해 지시대상을 추적할 수 있는 구정보이므로 구 말 위치라고 해도 초점 액센트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명사 목적어인 경우 세 가지 P 단어에 모두 높은 피치액센트 비율을 보인 것은 이러한 의미적 해석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문말 대명사는 선행하는 요소에 피치액센트를 이동시켜 전체 발화의 리듬패턴을 변형하는 역할을 한다는 실험연구(이주경·한혜승 2008)와도 일관성이 있다.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 단어의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은 발화 속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느린 발화 속도에서 피치액센트가 더 빈번하게 실현되지만 빠른 발화 속도의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발화 속도는 P 단어 구조의 운율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P 단어에 피치액센트가 구현되지 않았던 발화의 운율패턴을 살펴보자.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치액센트는 목적어가 명사구인 경우 선행하는 동사와 후행 명사구 모두에 실현되었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술어(predicate)보다는 논항(argument), 특히 내재논항(internal argument)에 피치액센트가 실현된다(Ladd, 1996). 이는 억양패턴에 의미적 접근을 시도한 Bolinger(1972)의 주장을 받아드린 것으로서 영어는 목적어가 동사보다 의미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목적어가 보통 문말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말 위치가 초점액센트를 받는 위치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는 P 단어가 피치액센트를 구현하지 않는 경우에 선행동사와 후행명사구 중 명사구에 피치액센트를 더 빈번하게 실현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동사와 명사구 모두에 피치액센트를 실현하였다. 앞서 P 단어의 피치액센트 및 대명사 목적어 구문의 피치액센트 실현비율 결과에 대한 의미적 설명을 시도한 것과 같이 동사와 명사구 모두에 피치액센트가 일관성 있게 부여된 이유는 화자들의 정보구조에 두 범주 모두 의미적으로 비중이 높은 요소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피치액센트 실현이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어의 운율 패턴은 발화의 표면에서 강-약 단어의 교체를 통하여 액센트음보를 구성하고 이러한 음보의 반복으로 리듬이 형성된다(Lee & Kang 2009). 이러한 리듬 구조에 대한 제약은 화자의 의도(intention)이나 전제(presumption)와 같은 의미 또는 정보구조에 따라 피치액센트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대상으로 삼은 ‘동사+P 단어+(대)명사’ 내의 피치액센트 패턴은 여러 가지 구조에서 접근하였을 때 의미적 정보성에 근거하여 제시된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P2 단어(부사전치사)가 운율적으로 어느 범주와 더 유사하거나 상이하다는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접어와 전치사를 구분하는 이분법 주장을 검증함과 동시에 부사전치사인 P2의 실제

를 밝히기 위하여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치액센트의 실현 비율이 접어의 경우처럼 높고 이들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부사전치사를 접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명사 목적어인 구문에서는 접어, 부사전치사, 전치사 모두 피치액센트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 사이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 세 범주가 운율적으로 하나의 범주라고 간주하는 것과 충돌이 생기게 된다. ‘논의’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의미적 접근의 설명을 되돌려 보자. 부사전치사는 의미적으로 선행 동사와도 후행 명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 두 요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의미적 부담이 접어보다 훨씬 크다. 반면 전치사인 P3의 경우는 단순히 후행하는 명사에 보조적인 문법적 기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적 부담이 훨씬 적다. 이러한 의미적 중요성이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에 반영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 세 범주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과 같은 범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범주를 이룬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명사 목적어인 경우에 피치액센트 실현비율이 모두 높은 것은 이 세 요소의 운율적 특징이 모두 같고 따라서 하나의 범주라는 해석보다는 인접 대명사가 의미적 중요성을 잃어버림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세 가지 P 단어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P 단어를 중심으로 선행경계와 후행경계에서 발생하는 구설정과 관련된 운율패턴을 논하고자 한다. P 단어 내에 발생하는 구경계는 실험문장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발생빈도가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P 단어가 선행 동사와의 경계와 후행 명사구와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구경계를 비교하고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 결과에서 제시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목적어 대명사인 경우, 대명사가 동사와 접어 사이에 삽입되는 P1의 경우는 P2와 P3와 같은 구조의 경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구경계를 통한 P 단어 구조내의 운율패턴에서 접어는 명사 목적어인 경우 후행하는 명사구와의 구경계를 더 빈번하게 설정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구경계 패턴을 보이는 전치사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런데 부사전치사 구문에서는 빠른 속도의 대명사를 제외하고는 앞뒤 경계에서 거의 구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표 5] 참조), 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접어와 전치사와도 구별된다.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부사전치사나 전치사 모두 선행하는 동사와의 경계에서 구설정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부사전치사의 빠른 속도의 경우밖에 없으므로 부사전치사가 전치사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표 6. P 단어 구조 내의 구경계 패턴(* 의미있는 차이)

| 목적어 | 속도 | 접어 | 부사전치사 | 전치사 |
|-----|----|------------|------------|------------|
| 명사 | 빠른 | V# < #NP * | V# = #NP | V# > #NP |
| | 느린 | V# < #NP * | V# = #NP | V# > #NP |
| 대명사 | 빠른 | | V# > #NP * | V# > #NP * |
| | 느린 | | V# > #NP | V# > #NP * |

따라서 P 단어 구조의 구경계 패턴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P 단어의 운율적 특성이 한 요소가 다른 요소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미의 중요도(weight)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치액센트의 실현 비율이나 선행 경계와 후행 경계 사이의 구설정 비율과 같은 운율 패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부사전치사는 접어나 전치사와는 독립적인 범주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동사+P 단어’와 ‘P 단어+명사구’ 사이의 구경계 비율의 차이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접어와 전치사 구문의 운율패턴을 피치액센트의 실현과 연결하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접어의 경우 피치액센트 실현 비율이 높았으며, 후행하는 명사구와의 경계에서 구설정 비율이 선행경계보다 높았다. 이 때 구말 초점 위치에 있는 후행 명사에도 피치액센트가 실현되는데 접어와 명사 사이에 형성된 구경계는 명사와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접어가 의미적으로 선행 동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의미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경계는 자연스럽게 후행 명사의 피치액센트와의 운율상의 연속성을 단절하여 액센트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접어는 다음 (6a)과 같은 운율구조가 나타난다.¹ 이 때 동사가 액센트를 받지 않으면 동사는 선행하는 피치액센트 음보에 포함되고 정보성의 이유로 액센트를 받게 되면 하나의 독립된 음보를 형성하고 후행하는 접어와 액센트 충돌을 만들게 된다.² 또는 접어에 피치액센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는 선행 동사와 후행 명사 모두에 피치액센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는데, 이러한 운율구조가 강-약 단어의 교체로 적형의 리듬구조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접어와 후행 명사 사이에 구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접어가 선행동사와의 응집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율 구조는 (6b)와 같다.

(6) 접어의 운율구조

- a. (...+Verb) + CLITIC | (NOUN)
- b. (VERB + clitic) | (NOUN)

¹ 피치액센트를 실현하는 요소는 대문자 처리 하였음. 물론 구경계 설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의미적인 이유로 접어와 후행 명사 모두에 피치액센트가 실현되어도 구경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억양에 화자의 의도나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미적 원칙이 리듬제약과 충돌하여 전자가 우선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6a)와 달리 (Verb + CLITIC) (NOUN)의 운율 구조를 보일 것이다.

² 편의상 동사에 피치액센트가 부여되지 않는 첫 번째 경우의 구조만을 보여주었다.

반면 전치사의 경우는 전치사에 피치액센트가 실현되는 비율이 거의 없고 선행 동사와 후행 명사에 피치액센트가 실현된다. 따라서 (7a)의 구조처럼 동사는 후행하는 비액센트 전치사를 포함하는 ‘강-약 음보’를 형성하고 명사는 피치액센트를 받아 독립적인 음보를 형성한다. 그러나 전치사 구문의 경우 14% ~ 34%에 해당하는 발화가 선행 동사와의 경계에서 구설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의 운율구조는 동사는 구경계로 인하여 연속성이 차단되어 하나의 액센트음보를 형성하고 피치액센트를 받지 못하는 전치사는 여분의 운율(extrametrical)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전치사는 결국 상위 운율 구조에서 하나의 중간구 또는 억양구 내에 등록되어 후행 명사와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게 된다. 즉, 적형의(well-formed) 운율구조를 이루고 있는 (7a)에 굳이 구경계를 설정하여 전치사를 후행 명사와 하나의 운율단위로 재구성하는 (7b)의 경우는, 의미적으로 전치사는 후행 단어를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혀 관계가 없는 선행 동사와 단절하고 구조적, 의미적 응집을 가지는 후행 명사와 하나의 운율단위를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7) 전치사의 운율구조

- a. (VERB + Preposition) (NOUN)
- b. (VERB) | ((Preposition) (NOUN))

같은 맥락에서 부사전치사 구문의 운율패턴을 고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경계는 의미의 응집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의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사전치사는 선행 동사와 후행 명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사전치사의 의미적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치액센트의 실현 비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선행 동사나 후행 명사 사이에 구경계 설정의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문말 위치에 있는 높은 정보성을 가지고 있는 명사의 경우 피치액센트가 실현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부사전치사와 후행 명사 모두에 액센트가 실현되고, 결과적으로 액센트 충돌이라는 리듬제약을 지키지 못하는 패턴이 도출된다. 그러나 부사전치사 구문의 하위에 자리잡고 있는 의미 구조가 리듬제약을 우선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동사는 액센트를 받는 경우 하나의 독립된 음보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선행 피치액센트가 구성하는 음보에 포함된다. 다음 (8a)의 경우는 부사전치사가 액센트를 실현하지만 후행 명사 사이에 구경계가 발생하지 않는 운율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부사전치사에 피치액센트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는 앞서 실험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 동사와 후행 명사 모두에 피치액센트가 실현되고, 부사전치사를 기준으로 동사와 명사와의 의미적 응집력이라는 같은 이유로 구경계는 설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패턴은 (8b)의 경우와 같다.

(8) 부사전치사의 운율구조³

- a. (... + Verb) (ADV. PREPOSITION) (NOUN)
- b. (VERB) (Adv. Preposition) (NOUN)

4. 결론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의 실제 발화를 통하여 세 가지 P단어, 접어, 부사전치사, 전치사가 포함된 구문을 관찰하고 이들 요소가 가지는 운율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의미적 비중 또는 중요성을 실현하는 피치엑센트가 각각의 P단어에 구현되는 비율을 통하여 접어, 부사전치사, 전치사는 서로 독립적인 범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P단어 구조 내의 구경계 설정 비율을 통하여 접어는 선행 동사와의 의미적 응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후행 명사와의 경계에 구설정을 하고, 전치사는 후행 명사와의 의미적, 통사적 응집력으로 인하여 선행하는 동사와의 경계에 구설정을 한다. 이와 더불어 부사전치사는 선행 동사와 후행 명사 모두와 의미적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구경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P단어 구조에 나타나는 운율구조는 본질적으로 그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의미적 관계와 각각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비중으로 인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주경 · 강선미. 2004. 영어 복합명사와 명사구의 강세충돌과 강세전이. *음성과학* 11(3), 95-108.
- 이주경 · 한혜승. 2008. 영어 기능어 발화의 리듬패턴. *대한음성학회 · 한국음성과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4-137.
- BOLINGER, DWIGHT L.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EHÉ, NICOLE. 2002. *Particle Verbs in English: Syntax, Information Structure and Inton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IXON, R.M.W. 1982. The Grammar of English Phrasal Verbs.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2, 1-42.
- EMONDS, JOSEPH. 1972. Evidence That Indirect Object Movement is a Structure-Preserving Rule. *Foundations of Language* 8, 546-561.
- FRASER, BRUCE. 1976. *The Verb-Particle Combination in English*. New York: Academic Press.

³ 편의상 동사에 피치엑센트가 실현되지 않은 구조만을 보여 주었다.

- JAEGER, FLORIAN T. and ELISABETH NORCLIFFE. 2005. Accent-free Prosodic Phrases? Accents and Phrasing in the Post-nuclear Domain. Paper presented at the 79th Annual Meeting on LSA. Oakland.
- LADD, ROBERT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RECHT, KNUD.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JOO-KYEONG & SUNMI KANG (2009) Rhythmic structures in content word utterances, *Journal of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Vol. 125, No. 4, 2573.
- MARTIN, PAMELA. 1990. *The Phrasal Verb: Diachronic Development in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O'DOWD, ELIZABETH M. 1998. *Prepositions and Particles in English: A Discourse-Function Accou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ROCA, I. AND W. JOHNSON. 1999. *A Course in Phonology*. Oxford, England: Blackwell.

Joo-Kyeong Le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Seoul
 90 Jeonnong-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43
 e-mail: jookyeong@uos.ac.kr

Han, Hyese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Seoul
 90 Jeonnong-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43
 e-mail: jkyoonhan@gmail.com

received: October 23, 2009
 accepted: December 10, 2009